

# 사립유치원 사태 오늘 분수령... '유치원 3법' 해법 나올까

## '유치원 3법' 오늘 국회 법안심사

한유총 "3법 통과시 즉각 폐원할 것" 정부 "협박으로 간주... 묵과 안해" 여야 '회계 이원화' 줄다리기 '팽팽' 폐원·모집중단 늘어... 불안감 고조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오른쪽 세번째)이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사립유치원 집단 폐원에 대한 범정부 대응방침 정부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립유치원 사태'가 국내 사립유치원 최대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와 정부의 '강대강 대처'로 이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낸 이른바 '박용진 3법'과 자유한국당이 '분리 회계'를 핵심으로 한 법안이 병합 심사되면서 절충안이 나오지도 주목된다. 3일 열리는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관심을 받는 이유다.

### ◆회계투명성 vs 일반 회계 이원화

박용진 3법은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으로, 정부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바꿔 부적절하게 사용할 경우 환수하고 횡령죄로 처벌하도록 처벌 기준을 명확히 하자는 게 핵심이다. 또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의무사용으로 투명 회계에 방점이 실렸다. 한유총은 이 개정안이 개인사업자인 사립유치원 설립자·원장의 재산권을 인정하지 않는 법안이라며 반대하는 상황이다.

자유한국당이 지난달 30일 발의한 유치원 3법 개정안은 한유총 요구를 일부 수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에듀파인 의무

도입을 담고 있지만, 국가 보조금과 누리과정 지원금 등 국가 예산으로 지원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국가지원금회계로, 학부모가 내는 원비는 일반회계로 이원화해 운영하도록 하자는 게 핵심이다.

현행법에 국공립유치원 회계는 있지만, 사립유치원회계가 없어 사립유치원회계가 불투명하게 운영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국가지원금회계의 경우 유치원 운영위원회 자문을 의무화해 학부모 감시를 받도록 했다.

자유한국당의 회계 분리 개정안에 대해서는 회계 투명화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사립유치원이 학부모가 낸 원비를 썩짓돈으로 쓸 수 있게 한

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용진 의원은 "(자유한국당 개정안)회계투명성 확보와 공공성 강화 등 큰 방향은 일치하는 것 같다"면서도 "유치원 회계를 학부모 부담금 회계와 나누자는 게 학부모 원비를 막 쓰도록 하자는 것이라면 국민상식에서 벗어나 동의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안심사 과정에서 조목조목 따져보겠다"고 덧붙였다.

### ◆폐원·모집중지 검토 89곳으로 늘어

한유총은 더불어민주당 당론 유치원 3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집단 폐원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폐원 유치원이 더 확대될지 우려되고 있다. 정치권이 유치원법 개정안을 놓고 힘겨루기 양상을 보이면서 '유아 교육권'이 불모로 잡

힌 형국이다. 당장 내년에 자녀를 유치원에 보내야 하는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가 공개된 올해 10월 이후 폐원이나 모집중지를 검토하거나 신청한 유치원은 전국 89개원(11월 26일 기준)에 달한다. 폐원한 사립유치원은 2016년 56개원, 2017년 69개원으로 사립유치원 폐원은 올해 가장 많을 것으로 보인다. 비리사립유치원 명단이 공개되기 전인 올해 1월~8월 자연 폐원한 사립유치원은 127개원이나 됐다.

지역별 사립유치원이 2000여 곳으로 가장 많은 경기도의 경우 1곳이 폐원을 신청했고 1곳은 모집중지를 검토하는 등 14곳이 모집중지나 폐원을 예고하고 있다. 서울지역은 27개 유치원이 폐원에 대해 학부모 협의를 진행 중이다. 충남 등 일부 지역의 경우 폐원에 따른 수용계획에 차질을 빚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유총은 지난달 29일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유치원 3법이 통과되면 집단 폐업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부는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힌 상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30일 "한유총의 집단폐원 통지는 사립유치원의 사적 이익을 보장받기 위해 전국의 유아 대상 학부모들을 협박한 것으로 깊은 유감을 뜻을 밝힌다"면서 "한유총의 집단 폐원 주장은 국민을 상대로, 학부모를 불안하게 만들기 위한 협박행위와 같으며, 절대 이를 묵과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한유총 집회에서 학부모 강제등원 등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파악해 불법 행위가 확인되는 즉시 경찰에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또 모집시기를 일방적으로 연기·보류하는 약 120여개 사립유치원에 대해 즉시 행정지도를 벌이고 필요한 경우 감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사립유치원 집단폐원에 대비해 이미 밝힌 내년 국공립유치원 1000개 학급 증설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단설유치원 신설도 추진한다. 서울과 경기 등 유치원 수요가 밀집한 지역은 시설 임대 등을 통해 긴급 국공립 단설 유치원을 조기 확보하고, 서울시를 비롯해 서울 관내 25개 기초자치단체가 부지와 건물 임대를 통해 유치원을 확보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국공립유치원 확충계획과 아울러 유치원 통학버스 단계적 확대와 방학 중 돌봄과 급식 개선 방안을 포함한 유치원 서비스 개선 방안을 오는 6일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한유총은 1일 입장문을 내고 폐원 입장을 거듭 밝히면서 생존을 고민하는 사립유치원들이 스스로 폐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출구를 열어줄 것을 토로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정책에 순응해 잔류할 수 있는 유치원과 세금을 받지 않는 또 다른 업종을 통해 유아교육의 실질을 영위하려는 유치원, 더 이상 유아교육에 매진할 수 없는 유치원을 나눠 잔류·변화·퇴로를 제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 2018 국제청소년리더 교류지원사업 결과보고회 상명대, '여성가족부 장관상' 등 수상

상명대학교는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AW컨벤션센터에서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 주관한 '2018국제청소년리더 교류지원사업 결과보고회'에서 여성가족부장관상 등을 수상했다고 2일 밝혔다.

국제청소년리더 교류지원사업에는 국내 14개 대학의 한국 학생 600명, 외국인 유학생 693명 중 1293명이 참가했다. 이번 보고회에서 상명대 이유근·류티란 학생은 여성가족부 장관상을, 박해진·황영우 학생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사장상을 수상했다.

각 대학들은 자체 기획한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 학생과 외국인 유학생의 교류 활동을 수행했으며 상명대학교는 한국 학생 43명과 중국 학생 23명, 베트남 학생 18명 등 총 84명의 학생들이 참가해 '한·중·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AW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2018국제청소년리더 교류지원사업 결과보고회'에서 상명대 학생들이 여성가족부 장관상과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사장상을 수상했다. /상명대

베 미래의 주역,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논하다'를 주제로 역사유적지 탐방을 통한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3국의 역사적 관계를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했다.

/한용수 기자

## KAIST 신입감사에 김선화 순천향대 교수

KAIST는 김선화 순천향대 교수(62·사진)를 상임감사로 선임했다고 2일 밝혔다. 임기는 2018년 12월 3일부터 2021년 12월 2일까지 3년이다.

김 신입감사는 공개모집 절차와 감사 후보선임위원회의 심사 및 추천, 이사회 의 최종 선임과정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임명됐다.

김 감사는 충남대학교 금속공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에서 금속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포항제철기술연구소, 한국기계연구원, 미조지아공대, KIST에서 연구원으로 재직했다. 국가과학기술자문



회의 자문위원, 순천향대학교 공과대학장, 대통령비서실 정보과학기술보좌관 등을 역임하며 연구관리및연구소경영 분야에서 경험과 전문성을 쌓았다.

KAIST 관계자는 "KAIST의 교육 및 연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예방적 감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용수 기자

## 성신여대 '특화형 도그워커', 일자리 공모전 우승

서울시 '2018 청년 일자리 해커톤' 서울형 뉴딜 일자리 사업으로 추진

성신여대는 재학생들이 서울시의 일자리 아이디어 공모전인 '2018 청년 일자리 해커톤'에서 우승을 차지해 서울특별시 장상을 수상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서울시가 청년들이 직접 낸 아이디어를 서울시 일자리 정책으로 활용하기 위해 개최했다.

성신여대 재학생으로 구성된 '함께견

개'(영어영문학과 16학년 이예림 외 4명) 팀은 '의료 특화형 도그워커'를 제안해 가장 우수한 아이디어로 선정됐다. 선정된 아이디어는 검토를 거쳐 향후 서울형 뉴딜 일자리 사업으로 추진된다.

성신여대는 이밖에도 5팀이 각각 속명여대 총장상, 상명대 총장상, 인기상, 장려상을 수상하는 등 이번 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성신여대 학생팀은 이번 공모전에 접수된 42팀 중 실현 가능성이 높은 15팀 중 6팀이 본선에 진출한 데 이어 전원 수상으로 눈길을 끌었다. /한용수 기자



29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2018 청년 일자리 해커톤'에서 우승한 성신여대 재학생 '함께 견개'팀과 김도형 부총장(맨 오른쪽)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성신여자대학교

## 세종대 건축학과 학생들이 '의왕시 도시설계 공모전'서 수상

세종대는 건축학과 학생들이 최근 개최된 '제12회 도시의 날 의왕시 도시설계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노후 공업지역인 의왕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주제로 진행됐다. 수상자는 세종대 건축학과 정혜현·임혜원·임차경·권은서·김희곤 씨 등 5명으로, 학생들은 '태일의 도시 내일의 도시 부곡'이라는 주제로 부곡동의 철도이 미지를 활용한 도시재생 방안을 제안했다.

학생들이 제안한 계획은 '도시 내의 자생적 재생을 통해 낙후된 환경을 정비하고 생산활동을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한 리모델링과 신축'이다. 또한 의왕시에 중심축을 설정해 더욱 생기가 넘치는 부곡동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계획의 주안점이었다.



(왼쪽부터) 세종대 건축학과 정혜현, 임혜원 학생, 유아영 교수, 임차경, 김희곤 학생 /세종대

정혜현 학생은 "의왕시라는 도시에 대해 더 자세히 알게 되어 철도 특구로서의 앞으로의 행보를 기대하고 있다"며 "우리의 계획안이 의왕시의 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지도해 주신 유아영 교수님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용수 기자

## 강남대 조예은 씨 '대한민국 인재상' 수상

강남대학교는 중등 특수교육과 4학년 조예은(사진) 씨가 '2018년도 대한민국 인재상' 시상식에서 장애학생 교육과 장애인식 개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민국 인재상을 수상했다고 2일 밝혔다.

조 씨는 강남대학교 웰-테크(Wel-Tech) 기반 융합복지 전문인력 양성사업단에서 시각장애인 이도성·접근성 증진 보조공학기 연구를 해왔으며, 청소년 진로 찾기 봉사활동 '엔젤맨'주최 및 진행과 한국 시각장애인복지관 주최 시각장애인 학습 봉사자로 참여했다.

조 씨는 "모든 장애인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밝혔다. /한용수 기자

